

2010. 6. 14.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0년 6월 15일(화)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대외협력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KDI 국제회의

「국제금융위기와 마이크로파이낸스: 도전과 국제협력」

- 일 시: 2010년 6월 15일(화) 09:00~16:50
- 장 소: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 주 최: 금융위원회, KDI, 세계은행
- 후 원: 미소금융중앙재단, 전국은행연합회, 매일경제신문사

- KDI는 6월 15일, 미소금융중앙재단, 전국은행연합회, 매일경제신문사 후원 하에 금융위원회,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국제금융위기와 마이크로 파이낸스: 도전과 국제협력」 (Global Financial Crisis and Microfinance: Challe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회의를 개최함.
- KDI는 신용위험관리 등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 제반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 각국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코자 금번 국제회의를 기획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실시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이 상승함에 따라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침.
-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져온 급격한 유동성 위축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종래 자금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던 대규모 우량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마저 유동성 확보에 있어 일시적인 애로를 경험

-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이 같은 경험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에 있어 신용위험관리, 유동성 확보와 대출 재원으로서의 예금유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됨.
 - 또한 외부 충격에 의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기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임.

- 이번 국제회의에는 마이크로파이낸스에 관한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은행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와 각국의 관련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해 KDI 연구진 및 국내 학계·업계의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 자금조달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과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확산 도모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들의 다양한 마이크로파이낸스 관련 프로그램 운용경험을 고찰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미소금융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의 해당 기관 및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 문의: 허 석 균 KDI 연구위원 958-4239

[프로그램]

2010년 6월 15일 (화)

09:00~09:30 **등록 및 네트워킹**

09:30~10:20 **개회행사**

개 회 사 현 오 석 KDI 원장
환 영 사 권 혁 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 사 김 승 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Tunc Uyanik 세계은행 금융·민간부문발전국장

10:30~12:30 **제1세션: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미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사 회 이 계 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 표

국제금융위기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 미친 영향: 자본조달 및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에릭 드플로스 세계은행 빈곤층지원 지문그룹 마이크로파이낸스 수석 전문위원)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현금흐름확보를 위한 노력

(허 석 균 KDI 연구위원, 박 창 균 중앙대학교 교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에 미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세버린 데부스 국제노동기구 전문위원)

혁신적인 금융소외 해소방안을 위한 G-20 전문가그룹의 원칙에 대하여

(루스 굿윈 그로엔 호주국제개발청 고문)

토 론

송 민 규 KDI 연구위원

연 태 훈 KDI 연구위원

14:00~15:30 **제2세션: 국가별 비교 연구**

사 회 에릭 드플로스 세계은행 빈곤층지원 지문그룹 마이크로파이낸스 수석 전문위원

발 표

유럽국가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례

(필립 귀찬두 유럽 마이크로파이낸스 네트워크 전무이사)

개발도상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례

(니말 페르난도 국제 마이크로파이낸스 감독기관 협의체 지문위원)

한국의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사례
(심 상 달 KDI 선임연구위원)

토 론

세버린 데부스 국제노동기구 전문위원
호이 소피아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협회 사무총장
박 창 균 중앙대학교 교수

15:40~16:50 제3세션: 국제협력을 위한 패널토의

사 회 루스 굿윈 그로엔 호주국제개발청 고문

토 론

에릭 드플로스 세계은행 빈곤층지원 자문그룹 마이크로파이낸스 수석 전문위원
니말 페르난도 국제 마이크로파이낸스 감독기관 협의체 자문위원
필립 귀찬두 유럽 마이크로파이낸스 네트워크 전무이사
장 경 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박 창 균 중앙대학교 교수
호이 소피아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협회 사무총장

제1세션.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미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국제금융위기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 미친 영향:

자금조달 및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Impact on MFIs, Funding and Government Policies

에릭 드플로스 세계은행 빈곤총지원 자문그룹 마이크로파이낸스 수석 전문위원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황은 식량가격의 상승과 함께 개발도상국 경제 및 해당 지역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도 영향을 미친 바, 이를 고객,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투자자, 정부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봄.
 - 마이크로파이낸스 고객: 경제활동 저하, 상환액 감소, 자금 수요 증가, 대출 증가, 부채비율 증가 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처하게 됨.
 -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유동성 제약의 증가와 포트폴리오 질의 악화(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등으로 인한 성장세와 수익률의 감소 양상을 나타냄.
 - 투자자: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
 - 정부: 위기 이후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확대재정프로그램(fiscal stimulus packages)의 일환으로 지급 보증을 비롯, 다양한 유동성 확보 및 대출재원마련 지원책도 병행
- 국제금융위기 이후 마이크로파이낸스 관련 당사자인 소비자, 금융기관, 투자자, 정부 각각의 책임성과 정보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데 모아진 인식의 기초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및 투자자는 소비자보호준칙의 도입과 실행에 노력하는 한편 업계 전체로서도 ESG(환경·사업·기업 지배구조 정보) 보고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출자의 금융지식을 제고하고 알권리를 보장하여 과다 부채에 빠질 소지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와 분쟁해결 절차 및 업계의 자율 감독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가계의 금융지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현금흐름 확보를 위한 노력 Stable and Diversified Capital Flow into MF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 허석균 KDI 연구위원

- 후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사회경제적 문제 대응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소액 신용공급을 통해 강화된 소득 창출 기반을 토대로 저소득 계층에게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에서 시작해 저축, 보험, 자금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화함.
 - 특히, 지난 30여 년 간의 노력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후진국의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음.
 - 최근에는 선진국 내부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성을 제고할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에 주목하는 추세가 뚜렷이 전개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에도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함.
 - 국제금융시장의 위축으로 대부분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 국제통화(hard currency) 표시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이 컸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경우 차환(refinancing)의 길이 막히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함.
 - 외부 충격에 의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적절한 대처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
 - 특히, 선진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후진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 차원의 노력이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경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투자기구(MF Investment Facility)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업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 대한 자금 공급,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은행과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간 대출에 대한 보증제공을 기구의 주된 목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통을 겪은 후진국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선진 각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출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함.
- 투자기구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제기구를 설립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 투자에 간여하고 있는 기존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에 미친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

The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Portfolio Quality of MFIs

세버린 데부스 국제노동기구 전문위원

-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평가기준 중 경제적인 성과 측면, 그 중에서도 대출 자산의 질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함.
 - 포트폴리오의 질은 수익성, 생산성, 자금조달의 효율성, 대출 자산의 질 등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경제적인 성과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음.
 - 세계 1,500여 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MIX(Microfinance Information Exchange) 자료를 이용해 대출자산의 질에 관한 분석을 수행
 - 대출자산의 질에 대한 관련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선정
 - ① PAR(Portfolio at Risk): 전체 대출자산 중 30일, 60일 혹은 90일 연체된 대출의 비중
 - ② Write-off ratio : 전체 대출자산중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대출의 비중
 - ③ Loan loss reserve : 대손충당금 규모
 - 분석결과에 따르면, 리먼 사태 이후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던 2008년과는 달리 2009년에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의 연체율이 이전에 비해 2배 이상(30일 연체 기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다만 이러한 이상현상이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인지 마이크로파이낸스 금융시장 내부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위험 관리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를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본연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성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 책임은 궁극적으로 해당 기관에 귀속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자금공여자들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위험관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은 다음과 같음.

- 신용정보체계 및 법적 인프라의 정비
- 지급보증의 제공 및 예금에 기초한 대출의 장려
- 공공사업을 통한 총수요 증대

혁신적인 금융소외 해소방안을 위한 G-20 전문가그룹의 원칙에 대하여
Principles of Innovative Financial Inclusion
from the Access through Innovation Sub-Group of the
G20 Financial Inclusion Experts Group

루스 굿윈 그로엔 호주국제개발청 고문

- 2009년 9월의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외 계층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에도 도달 가능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통상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된 20억 명 이상의 성인들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소외계층의 소득 변동성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도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임.
 - IT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이고 그들에게 제공될 금융서비스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혁신적인 금융소외 해소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모색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 혁신적인 금융소외 해소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전 세계 정책담당자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로부터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반한 것으로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및 규제 환경의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원칙들은 엄격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가별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변형시킬 수 있을 것임.

제2세션. 국가별 비교 연구

유럽국가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례

The experience of Microfinance in European Countries

필립 귀찬두 유럽 마이크로파이낸스 네트워크 전무이사

- 유럽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고유의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빈곤 및 사회적 소외 문제와 싸워왔다는 점에서는 다른 지역의 마이크로파이낸스들과 공통점을 가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자영업과 소기업에 대한 25,000유로 이하의 대출로 정의하고 있음.
-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동유럽과 중앙유럽에 소개된 마이크로파이낸스부문의 성장세는 상당히 역동적이었음.
 - 동유럽에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기존 은행시스템을 대신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체제전환기의 자금수요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음.
 - 반면 서유럽에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잠재성에 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성장에 그침.
-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지역 내 소기업과 가계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다 용이한 접근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금융서비스 제공 대상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에서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이를 위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자본조달비용과 운용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EU 위원회 및 의회 차원의 지원이 있기를 기대함.

개발도상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례 The Developing Country Experience of Microfinance

니말 페르난도 국제 마이크로파이낸스 감독기관 협의체 자문위원

- 개발도상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은 지난 40년 동안 상당히 발전해왔음.
 - 1970년대 방글라데시, 인도, 라틴 아메리카의 몇몇 국가들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마이크로파이낸스 프로젝트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서비스의 제공 방식,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으며,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기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임.

-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의 진화와 성장은 지난 십 년 간 더욱 두드러졌으나,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상업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접근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추가적인 발전과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소외 해소 목표의 달성 여부 및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빈곤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 예금 수신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문제

한국의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사례 The Experience of 'Smile Microcredit Bank' in Korea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에서는 30여 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 서민금융재단 자금, 민간 기부금을 지원받아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00년부터 (사)신나는조합 등 민간단체가 민간 기부금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시작함.
 - 마이크로 기금의 공급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 문제가 있어 왔음.
 - 휴면예금을 재원 삼아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지원하는 「소액 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중추적 기관인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함(2009년 9월 17일, 「미소금융(Microcredit) 확대방안」 발표).
- 미소금융재단의 기능은 크게 총괄, 자체 네트워크 구성·지원, 재원 배분의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 총괄 기능: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 자체 네트워크 구성·지원 기능: 지역별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직접 수행하는 법인을 공모해 구성한 200~300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 수행
 - 재원 배분 기능: 마이크로파이낸스 수행법인에 대출 및 운영자금 배분·지원
- 미소금융재단은 지난 4개월 간 전국에 38개의 지점을 설립하고 약 1천명에 71억 원을 대출함.

-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500만원 내외 긴급·소액 자금에 대한 서민 수요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남.
- 가장 큰 성과는 미소금융의 출범으로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금융소의 해소를 통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모금이 시작된 동시에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마련된 것임.
- 미소금융 대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출만이 아니라 마케팅과 유통 지원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도시화가 진전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만 한다고 팔리지는 않는 바, 이미 영세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형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파이낸싱만이 아니라 마케팅 유통 등의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현재 4.5%로 책정된 금리를 시장 금리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음.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와 같이 미리 정해진 기준보다는 고객에 대한 이해에 바탕한 대출을 통해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다양한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원봉사자나 명예직보다는 전문성 있는 유급 직원이 필요한 바, 이들을 육성함과 아울러 기존사업자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신용소외계층과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원활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통로가 되어야 함.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직접 자체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자금을 중개하는 펀드로서의 기능을 할 필요가 있음.

- 마이크로파이낸스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우호적인 에코시스템(ecosystem)을 만들고 smart subsidy를 지원하는 것임.
- 정부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주도하기보다 민간 섹터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이 분야의 높은 거래비용과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smart subsidy로 운영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신용소외계층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수립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정부, 시민섹터, 기업 부문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이를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임.